

다국적기업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Wendy Dobson

동아시아 경제의 역동성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인 중국의 등장은 세계 경제지도를 변화시켰다. 실제로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동아시아로 이동한 것이야말로 20세기 후반을 규정하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동은 이 지역 경제성장의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에 비하여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신 동아시아 경제성장은 선진국들의 성장에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고에 따르면, 1995년 아시아지역 10대 개발도상국(한국 포함)들의 수입총액은 각각 7,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수입규모와 비슷했다. 이 집단은 이제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에 이어 세계경제에서 제4의 중심이다.

1960년 동아시아 경제규모는 세계총생산의 4%에 불과하였으나, 이제는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수출입의 약 1/4을 차지한다. 그리고 1994년 상당한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한 일본, 대만, 싱가포르 및 중국은 세계純장기자본이동의 절반이상을 공급했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인상적인 실적치로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하나는 이 국가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숙할 때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세계경제활동에서 비중이 커지는 것은 세계경제에 대한 책임을 초래하지만, 세계경제기구내에서의 영향력 또한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급속한 경제성장은 역내 무역과 투자를, 역내 경제통합,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는 물론 역내국가 상호간 의존도를 증대시킨다.

동아시아 역내통합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시장이 선도하는 통합이라는 점인데,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무역 및 금융 유대관계가 증가한다. 이러한 자발적 통합은 북미와 유럽처럼 정부간 무역자유협정에 의

해 이루어진 통합과는 대조적이다. 이 논문에서 본인은 직접투자와 무역, 기업과 정부간에 형성되는 유대관계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기업과 정부의 목표, 생산 네트워크와 관련 무역 - 투자 유대관계, 그리고 이러한 유대관계가 갖는 의미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현재 동아시아는 해외직접투자가 집중되는 주요지역으로, 최근에는 중국에 대해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많이 몰리고 있다. 이러한 직접투자의 대부분은, 특히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분야에서 무역을 유발하는 투자이다. 이것은 투자대상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성숙될수록, 직접투자는 수출입 모두를 증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흐름 뒤에 있는 역동성을 주제로 하였다.

제조업분야에서의 직접투자는 세계상품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 규모의 경제 또는 기술로 인하여 진입장벽이 있는, 과점적이며 조립라인이 필요한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 그리고 비용에 민감하고 매우 경쟁이 심한 섬유 및 의복산업 - 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1994년 아시아 수출의 60%를 이러한 산업들이 차지했다.

기업과 정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이러한 산업분야에서 다국적기업들은 종전에는 한곳에서 수직적으로 통합되었던 작업들을 분산시켜 놓았다. 그들은 모기업의 총체적 생산효율을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각각 흩어져 있는 부가가치 부분들을 재조합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분산된 부분들이 생산 네트워크의 일부이다.

다국적기업은 국경의 제한없이 이러한 작업들을 조정할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의 국제적 활동은 조정능력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그들은 투자국 정부의 투자 유인정책 등에 의해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들에서의 작업들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우위를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하여 여러 지역에서 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하는 제휴기업들이 조직되고 있다. 판매 및 시장활동은 지역시장의 수요자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되며, 생산 및 관련 지원활동은 기업의 국제적 경쟁우위를 최

대한 높일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이다.

정부는 고도성장을 통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복지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새롭고 보다 앞선 고부가가치산업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일반 기술산업들은 정리하거나 후발국가들로 이전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이 추가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기술과 기법을 이전하며, 국제적 시장 네트워크와 같은 독점적 자산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국적기업들은 성장의 원천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산업화와 경쟁력이라는 국가적 목표달성에 기여한다.

정부정책은 무역과 투자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1980년대초 이래로 거시경제정책은 변화해 왔다. 통화가치는 하락했고 (싱가포르를 예외), 재정정책은 대규모 부채가 축적되는 것을 피했으며 (필리핀을 예외), 통화정책은 보수적이며 물가상승률은 적당했다. 기업들은 낮은 이자율과 낮은 물가상승률, 그리고 높은 저축률로 인하여 이득을 보았다. 거시경제적 안정성은 기업들에게 장기적 계획과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했던 것이다. 또한 정부는(최근까지의 일본, 한국, 대만은 예외) 자본과 기술의 원천이며 고도산업화의 수단으로서 직접투자를 환영하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 정책들은 수출지향적 활동을 보상하는 금융상 인센티브(표 1 참조), 국내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공정상 요구사항, 그리고 여러가지 규제들에 상당히 의존하였다.

생산 네트워크 - 무역 및 투자와의 연관관계¹⁾

이러한 생산망이 초국경적으로 운영되는 방법은 동적인 비교우위원칙이 생산현장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다국적기업 본국의 생산자

1) Dobson, Wendy and Chia Siow Yue (eds.), *Multinationals and East Asian Integration*, Ottawa and Singapore: IDRC Books and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의 일부임.

〈표 1〉 동아시아의 재정정책상 인센티브*

	1990년대초 인센티브 제공국가수	인센티브범위		인센티브 제공국가수	
		증가**	감소	증가	감소
표준 법인세율의 인하	13	○		X***	
Tax Holidays	13	○		○	
가속 감가상각	8		○		○
투자/재투자 허용	5	X		○	
사회보장적 기여금 공제	1	○		○	
소득세제상 특별공제	12	○		○	
수입관세 면제	13	○			○
관세 환급	8	○		○	
표본수	17	10		10	

주 : * 1980년대 중반~1990년간의 변화.

**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되거나 많은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제공.

*** 변화없음.

자료 : UNCTAD, 1995

들은 비용상승, 경쟁증대, 기술변화 등으로 기초 제조업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한다. 그들이 비교우위를 상실한 분야에서는 표준화된 기술에 의한 노동집약적 생산이 중단되거나, 직접투자를 통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른 산업공동화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본국에서는 기업들이 보다 고부가가치생산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발명하거나 수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식해야 할 중요한 점은 어느 국가경제도 해외투자를 통하여 산업전체를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신 본국의 산업은 고부가가치생산으로 이전된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는 가치사슬에서 상향 ‘이동’한다. 기업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과정이 함축하고 있는 ‘작업분산’은 그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다국적기업이 초국가적으로 제조업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본부와 서비스 기능들은 고도의 숙련노동력과 저비용의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홍

콩이나 싱가포르 등에 위치한다. 양 지역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인근 소규모지역의 생산을 조정하는 서비스‘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산에서의 수직적 분산으로 가능해진 역내 생산이동의 예로서 일본의 거대한 가전기업인 마쯔시다社를 들어 보자(표 2 참조). 마쯔시다社는 고부가가치 오디오생산을 일본에서 싱가포르로, 중간부가가치 생산은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그리고 저부가가치 생산은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예는 어느 한 지역이 특정수준의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하더라도 투자 자체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보다 선진적인 생산이 들어오고 다른 생산이 밖으로 이동함으로써 지역의 생산시설이 좋아진다. 부가가치에 중점을 두고

〈표 2〉 산업고도화 추진과정(마쯔시다社)

시 기	추진실적
1986년 이전	· 녹음기, CD재생기, 반도체 생산
1987년	· 기술지원센터 설립 · LIUP에 가입 · 오디오 생산 확대 · 팩시밀리 공장과 오디오 및 비디오용 소형모터 생산공장 설립
1988년	· 싱가포르소재 기업은 동결하고 미국시장을 위한 동종 상품생산을 위해 미국내에 새로운 공장설립 투자
1989년	· 생산설비의 고도화
1990년	· OHQ 수준 달성
1992년	· 선구적 업적으로 EDB 상 수상 · IPO 개설 · CD와 고품질 오디오용 주요부품 시설투자
1993년	· 산업관리체계 생산을 위해 Eutech社(지역 소프트웨어 회사)와 제휴
1994년	· disk drive 공장 설립 · 고품질 오디오 생산 고도화 · 저품질 오디오 생산은 말레이시아공장으로 이전 (말레이시아에서의 생산은 중국으로 이전) · 일본밖에 최초 디자인기지 개설

본다면, 해외생산 네트워크는 상이한 비교우위를 갖는 국가간의 경쟁이 다양한 부가가치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동적인 positive-sum 게임이라는 교환을 얻게 된다. 즉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네트워크는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은 물론 섬유 및 의복 분야에서도 무역을 유발한다. 특히 大중화권역과 동남아시아에서는 초국경적인 기업내 무역이 특징이다. 실제로 본인과 11명의 동료들이 최근 완성한 연구에서는 지역내 전자분야 무역의 55%가 기업내 무역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생산자들이 지역시장을 목표로 하는 만큼, 그들은 보다 강력한 역내 유대관계에 도움이 된다.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투자는 특히 전자분야의 역외무역에 도움이 되며, 그들이 역내 제휴기업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는 만큼 역내관계 또한 당연히 증진시킨다. 전자산업분야에서는 일본과 미국 투자자들의 무역형태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 만일 차이가 있다면, 산업전자분야의 다국적기업으로서 미국기업들은 일본의 경쟁기업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많은 부품들을 미국내 모기업에 대해 수출함으로써 기업내 무역을 보다 많이 한다는 점이다. 반면 일본기업들은 가전제품 생산자로서 지역시장에 대한 상품판매를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다. 양국 생산자들 모두 지역 공급업자들이 질과 신뢰도라는 점에서 동등한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일본인소유의 공급업자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려는 경향이 있다.

제휴의 의미

동아시아지역이 고속성장하는 것은 점차 부가가치활동의 수직적 분산에 익숙해지고 있는 기업들과 이들 기업을 산업고도화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정부간에 긴밀하고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과 정부의 이러한 활동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기업내 생산네트워크는 대만의 Acer-Texas Instruments 합작기업과 같이 합작투자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이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유대관계는 상당한 수준의 상품 차별화를 특징으로 하는 과점적 산업분야에서 산업내 무역이 성장함에 따라 강화되고 있다. 이

러한 산업내 무역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유럽통합의 기초를 제공했다. 무역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생산물의 교역기회가 많아짐으로써 지역내 무역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무역을 유발하는 투자의 많은 부분이 역외에서 온 것이기는 하지만, 선진경제권에서의 통화재조정과 생산비 상승은 기업들로 하여금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다른 지역, 특히 중국에의 투자를 증대시켰다. 이러한 방어적 투자는 한국인들에게는 친숙한 것이다. 본인과 동료들의 연구보고서에서 대만 중소기업들의 방어적 투자 또한 발견할 수 있다. 번듯한 본부를 유지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해외투자는 기업을 주변국가로 이동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 중견기업들은 기존의 소비자들을 유지하면서 이동하지만, 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이주에 따른 고비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출한 국가의 국내수요 패턴에 신속히 적응함으로써 토착화해야 한다.

셋째, 기업이 가치사슬의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각각의 활동수준에 가장 적합한 위치를 선택하기 위하여 지역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과 싱가포르는 서비스 중심축이 되고 있고,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태국은 中부가가치 활동지이며,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베트남은 低부가가치 활동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는 산업 고도화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목표에 힘입어 경제가 특정 산업분야에서 가치사슬의 상층부로 이동함으로써 크게 변하게 된다.

넷째, 앞서 언급한 전통적 형태의 정부간섭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미 진출한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 인센티브가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투자대상국의 납세자로 부터 다국적기업의 주주에게로 이전을 조장함으로써 효율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WTO 규정은 수출할당이나 다른 공정상 요구사항 등과 같은 무역관련 투자규제조치들의 점진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도 세계화에 관심이 있는 정부는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외국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정부는 국내기업이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하도록 기존의 무역보호장벽을 철폐하고 보조금을 감축하고 있는데, 선진경제권에서는 이

미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高부가가치 활동에서 비교우위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모방보다는 혁신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술형성을 장려하고 혁신과 기업정신을 양성하며, 통신, 금융 및 수송 서비스 형태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초국경적인 생산구조의 효과는 positive-sum 게임이지만, 무역과 직접 투자의 상관관계가 급속히 성장하는 것은 일부 산업에 불과하다. 앞으로 관심을 끌 문제 중 하나는 최종재보다 부품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기업내, 산업내, 지역내 교역이 집중될 것인가이다. 만일 최종수요가 역외에 존재한다면, 다른 지역에서의 불황은 역내 중간재생산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다른 지역의 경기침체에 민감하다는 점이 이 지역의 구조적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위험의 잠재적 심각성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기업과 정부는 지역의 경제적 다양성을 이용함으로써 지역통합에 영향을 준다. 무역과 투자의 보완성으로 인하여 기업내 교역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무역과 투자정책을 별개로 수립하고 관리하던 정부도 앞으로는 양 정책들이 갖는 보완성을 인지하고,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토 론

질의 Pang Eng Fong 박사 (주한 싱가포르 대사)

Dobson 교수께서는 역내 참가국들이 투자이익을 얻는 작업분산의 형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부 국가, 특히 일본에서는 공동화현상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자본과 기술이 일본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은 일본도 이에 적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해외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일본과 비슷한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즉, 공동화현상의 효과, 특히 특정지역에서의 국내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또한, 어떤 정책을 도입해야 해외투자가 국내산업을 해외로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경제와의 통합을 심화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

세계화의 필요성도 있으나 동시에 여러 나라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필요와 자국정부의 목표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은 목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외투자의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질의 유정호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인의 질문은 국가경제와 정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Dobson 교수께서 언급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들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국가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국가경제의 성격이 변화한다면 적절한 정부의 역할 또한 변할 것인데, 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

질의 구본호 박사 (울산대학교 총장)

한국의 해외투자는 최근 몇 년간 매우 활발하였으나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부진했다. 이러한 비대칭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구체적 증거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직감으로는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그 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학자들은 종종 경제문제를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적 요인으로만 이야기하지만, 보다 중요한 요인들은 문화적인 것들이다.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활발한 것은 상당부분 해외화교의 역할에 기인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외국 문화에 가장 적대적이다. 한국은 몽골, 일본, 중국 등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는 반외국적인 것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정부의 유인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의 이상설 사장 (월정 인터내셔널社)

해외투자에서 있어서 마쓰시다와 소니 중 어느 회사가 더 성공적이었는가? 아울러 생산네트워크 제휴, 기업내 교역과 산업내 교역, 국제적 자기계약협정들간의 주요한 차이는 무엇이며, 어느 것이 교역과 투자를 증대시키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질의 박태호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형태는 이웃 국가들과 다르다. 즉, 우리는 해외차관에 더 많이 의존함으로써 대만이나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재벌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한국 특유의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차관형태의 특징이다. 작업분산, 합작투자, 협력 및 전략적 동맹과 같은 다른 대안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거나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나라에서도 재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1984~86년 기간중 운영되던 외국회사의 자료를 분석, 한국에서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일본기업과 미국기업은 교역활동에서 서로 다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본기업들은 제3국으로의 수출보다 투자대상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추구한다고 Dobson 교수께서 주장하였으나 본인의 연구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즉, 미국기업들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하여 한국에 진출하는 반면 일본기업들은 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한국에 진출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시장 또는 한국경제의 다른 특성 때문인가, 아니면 분석기간이 다르기 때문인가?

응답 Dobson 교수

산업공동화 현상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바, 이는 환율조정이 잘못되

있고,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던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확실한 해외투자자가 된 아시아 선진경제들의 우려는 1980년대 중반 미국 또는 일본의 불안했던 마음을 기억나게 한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국내에만 투자할 경우 공동화현상은 없을 것이다. 보다 고부가가치 작업에 투자해야 하고, 자본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부가가치사슬의 상향이동을 위하여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분야의 지식활동과 사람에 대해 투자해야 한다. 공동화현상에 대해 우려를 갖는 것은 고용과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일본기업들이 문호를 폐쇄함으로써 대학을 졸업한 젊은 여성들이 1980년대처럼 평생고용직장에 최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반면 퇴직의 문은 열려 있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산업구조조정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수만 명의 해고사태가 발생하지만 이들을 해고한 경영진들에게는 단기적 이익을 회복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유로 막대한 보상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 것이다. 본인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로 투자이다. 고도화되어 가는 경제에서 성공적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지식에 기초한 일자리와, 제조업에 많은 노동자들이 있을 때에는 수요가 없었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았던 것처럼,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은 50세 이상의 남성세대에게 일어나는 문제이다. 때로는 퇴직수당이 그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해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든다. 불행하게도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알려주는 연구는 없으나, 그들은 노동력시장에서 떠났다.

따라서 그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을 개방하고 시장의 힘과 구조적 변화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조적 변화에 대해 아는 것은 시장의 힘 때문에 그 시기나 크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이것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 선진경제는 너무나 복잡해져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간섭을 중지하는 것이다. 클린턴행정부는 좋은 일자

리를 만들기 위하여 시장을 개방하고 수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무역정책을 채택하였다. 왜냐하면 경제에 대한 간섭은, 다른 지역, 집단 산업에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OECD회원국 정부는 시장의 힘이 생산과 무역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두는 것에 합의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효율성과 경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정책 지원, 인프라 건설, 새로운 기술 습득 조장, 노동력의 이동성 향상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을 구조적 변화에서 단순히 보호하는 것보다는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적인 안전망 또한 오늘날 OECD회원국들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직접투자에서의 비대칭현상에 관한 구본호 박사님의 관찰은,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영역밖이라고 생각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점에 대한 매우 유익한 논평이었다. 이에 덧붙여 한국이 성숙된 시장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투자자들은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높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중국에 진출하려 한다. 한국은 현재 자산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지역시장에 판매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기술을 습득하거나 지역선전에 영향을 주는 R & D 등의 제휴가 가능할 것이다.

소니社와 마쯔시다社를 비교하면 양자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소니社는 훨씬 새롭고 규모가 작아서 별다른 차별화 없이도 일본시장내에 자신의 영역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기업이다. 그들은 계열화의 모든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활동에서 훨씬 혁신적이고 분권적일 수 있었다. 따라서 소니는 해외에서 마쯔시다보다 신축적이고 영리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 기업내 교역, 하부계약, 그리고 전략적 제휴에 관해서 본인이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정 하나하나가 국제적 기업으로서(단기적 그리고 그들의 장기 전략상) 비용과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하부계약으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되 성과가 좋을 때는 반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다. 또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내 관계가 더욱 효율적일 수도 있다.

한국의 외채의존문제와 일·미 기업간 비교에 관해서 본인은 한국의

재벌들이 국가발전의 도구였으며 국제적 주도권을 잡는 데 유리하였던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모방자에서 창의자로의 변화라는 한국의 장기적 목표에 대한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조직구조가 과연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경제전체의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필요한 혁신을 진작시킬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가 등이다.

박태호 박사는 일·미 기업활동 비교연구에 진전이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미국기업들은 1980년대에 다시 아시아로 돌아왔는데, 아시아에는 저비용의 생산설비와 미국인들이 해외에서 생산하여 본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관세정책과 국민선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미국기업들은 아시아시장 자체도 전망이 좋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심을 지역시장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진출하기 위하여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다. 한편 일본의 가전기업들의 장기적 전략은(일본이 가전산업을 가진 반면 미국은 산업전자에 전적으로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역시장을 합리적으로 분석한 후, 저비용 생산은 물론 지역시장 장기 공급을 담당하기 위해 지역시장을 장악하는 것이다. 미국기업들은 산업전자분야에서 점진적으로 비슷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가전분야와 산업전자분야라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역형태는 매우 비슷하다. 본국과의 거리 등의 이유로 인하여 아시아에서의 생산형태와 미국의 생산구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기업들은 보다 쉽게 일본이나 지역에서 부품공급을 받으며, 보다 개방적인 생산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의 지역산업 고도화계획 등 지역내 부품조달정책은 지역경제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기업들이 지역내 공급자를 찾아 협력하면서 그들을 도와 품질과 시간적 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만들도록 하는 데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공 일 박사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동아시아경제의 역동성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Paul Krugman 교수

의 견해를 인용한다.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성장잠재력은 한계가 있다는 Krugman 교수의 견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당신의 몇 가지 견해는 Robert Reich 교수가 쓴 “누가 우리인가?(Who is Us?)”라는 논문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아울러, 본인은 Lester Thurow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외국기업들이 국내기업과는 다른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인가”라는 논문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Thurow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고 싶어한다. 이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듣고 싶다.

응답 Dobson 교수

본인은 “Krugman 교수는 정확히 무엇에 대해 불평하는가”라는 파이낸셜 타임즈紙 Martin Wolf 편집인의 견해를 지지한다. 미국의 소득수준에 비해 훨씬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 지역의 역동성은 Krugman 교수의 생애 이후의 미래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가? 물론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방법으로 모방자에서 벗어나고 직접투자 기술이전을 통하여 기술향상과 생산성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어떻게 혁신을 위한 독창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본인이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한국이(객관적인 지표들은 여러분이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과의 경쟁을 개방하고, 보호장벽을 제거하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구조를 편리하게 만들 대책을 검토하고 장벽과 불필요한 비용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역동성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대학과 기술연구소의 구성원들이 어떤 종류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 - 창조적 능력인가, 아니면 모방적 능력인가? 이것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대답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기업가들이 혁신 기회를 만들어냄으로써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Krugman 교수도 동의할 것으

로 생각한다.

캐나다도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우리인가?”라는 질문과도 관련이 있다. 본인은 캐나다 기업과 미국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비상임이사이다. 최근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거래비용을 줄이라는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작년 본인이 이사로 있던 한 기업에서는 본인이 캐나다 자회사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없다고 알려왔다. 이제는 모든 결정들이 모회사가 있는 미국에서 행해진다는 것이다. 처음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본인은 불쾌하였고, 평생 처음으로 경제적 국수주의자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일을 정부관계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태도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였다. 그들은 “외국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들이 생산, 수출, 그리고 일자리가 아닌 다른 면에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거대한 공룡으로 변하고 있다. 그들이 나누어 주었던 본사 기능에 속하는 고도의 기술들은 지역본부 또는 국제적 본부로 회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성장하는 캐나다 기업들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본인도 그들이 옳다고 생각한다. 본인도 캐나다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외부지향적이며,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데 기업들과 함께 모든 힘을 다 바쳐야 할 것이다.

한국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지 않았고, 외국인 자회사 같은 것들이 별로 없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제휴기업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다국적기업들은 너무나 극심한 경쟁압력을 받아서 오직 자신들의 목표달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마 그들 본국의 주권이나 이해와는 상충되는 결정을 내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한국과 같은 수준의 발전단계에 있는 경제에서 과거 캐나다에서 누리던 영향력보다 작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본인은 Robert Reich가 “누가 우리인가?”를 쓸 때에는 동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현실적이어야 한다. 일자리의 대부분을 자국의 중소기업들이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장기적 목표는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하여

국제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질의 사공 일 이사장

구본호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직접투자보다, 특히 발전의 초기단계에서 해외차관에 의존했던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른바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이유들이다. 한국은 일본 식민통치의 경험으로 인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을 어렵게 만드는 법규와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더구나 관료들은 그러한 법규를 더욱 까다롭게 해석하는데, 그러한 정신자세는 아직도 존재한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고정환율제도하의 고도 인플레이션상황에서는 지분참여보다 차입이 훨씬 더 이익이다. 또한 한국인들은 매우 배타적이다. 한국기업들은 다른 한국기업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하지 않는데 하물며 외국기업과의 합작기업은 더욱 어렵다. 현수준의 발전단계에서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다 대외지향적인 정신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 박사님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한다.

질의 김영태 기자 (매일경제신문)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경제가 2020년에 캐나다경제를 추월하여 G-7국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예측이 믿을 만한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본인의 관심은 경제적 번영이나 경제력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요인이나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이다. 또한 세계화와 관련하여 G-7국가들의 구성에 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인가?

응답 Dobson 교수

한국과 아시아국가들이 지도력을 갖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세

세계경제의 장래와 국가간 관계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발전인가에 대한 비전이다. (국가간의 관계는 종종 지도자들간의 관계를 따른다.) 따라서 OECD 가입은 지도자와 관료들에게 각자가 무엇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고 성공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한 국가가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 궤도를 벗어났다고 생각되면, 다시 궤도로 복귀하라는 국제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은 상호적인 것이다. 실제로는 하나의 독립된 세계인 국제기구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혼자 행동할 때에는 가질 수 없었던 이웃국가의 정책수단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OECD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본인은 G-7과 국제기구들이 세계경제가 발전하는 길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러시아를 G-7에 포함시키려는 유럽인들의 압력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안보상의 문제이지 경제적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들, 특히 아시아국가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국제기구들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대체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 G-7은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과 헬무트 슈미트 독일 수상의 우정과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석유위기 이후 1970년대의 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탄생한 것이다. 차후의 국제적 기구는 아마도 아시아 지도자들과 미래 미국 지도자간의 개인적 관계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기구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